

2. 98년 1/4분기 경제성장을 발표

- 98년 1/4분기에 우리 경제는 대외와 대내 부문의 성장이 양극화되고 재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특징을 보임
 - 대내부문 성장 기여도가 -29.2%에 달하는 반면, 대외부문은 25.4%에 이르는 등 부문 간에 심한 성장기여도 격차를 보이고 있음
 - 불황 지속중에 나타난 재고의 사상 최대폭 감소는 금융 경색에 따른 생산 축소 및 원자재 수입 둔화가 심각한 상황임을 의미
- 상반기 중에는 (-) 성장률이 지속되고 하반기에 가거나 0% 전후까지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, 98년 내내 심각한 불황 국면의 지속이 예상됨

□ 98년 1/4분기 성장 지표의 특징

- **(성장률의 특징) 대외 부문과 대내 부문 성장 기여도의 극단적 양극화와 재고의 사상 최대폭 감소로 특징지어질 수 있음**
 - 98년 1/4분기 경제 성장률은 80년 4/4분기의 -7.8%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(-) 성장률인 -3.8%를 기록
 - 외환 위기와 구조조정의 여파에 따른 금융 경색과 경기 급락으로 소비, 투자 등 내수 부문은 극심한 침체 국면을 나타냄
 - 반면, 대외 부문은 환율 급등에 따른 가격 경쟁력 향상으로 총수출이 27.3%나 증가한 반면 수입은 25.4%나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음
 - 1/4분기 중 재고는 무려 9조 7,541억원(90년 불변가격 기준)이나 감소하여 사상 최대의 재고 감소를 기록 (97년 3/4분기의 4조 6,620억원이 최고 기록)
- **(성장 구성 지표의 특징) 98년 1/4분기는 부문별 경제 성장률간의 큰 격차로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**
 - 수출 물량 급증과 수입 물량 감소로 대외 부문의 성장 기여도는 25.4%p에 이르고 있는 반면, 대내 부문에서는 총소비와 총고정자본형성의 성장기여도가 -14.1%p이며 재고 변화를 포함할 경우에는 -29.2%p로 나타남
 - 재고 감소를 감안하지 않을 경우, 98년 1/4분기 성장률은 무려 11.1%에 이르게 되어 재고 변화가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나타남
 - 만약 재고 감소가 기업의 자금난에 따른 수입 감소에 의해 발생했다고 가정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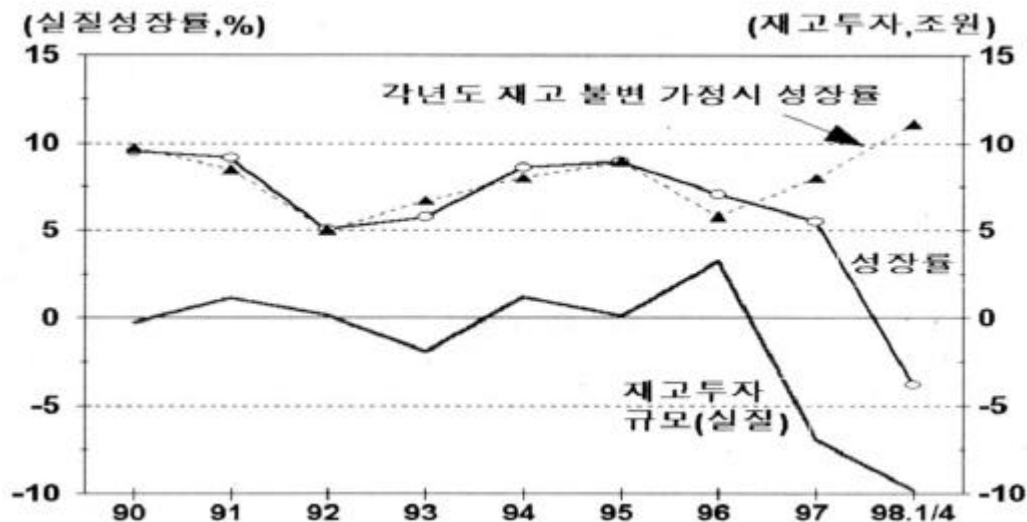
고, 수입 감소(성장률에 +요인)와 재고의 감소(성장률에 -요인)를 동시에 성장률 산출에서 제외할 경우 98년 1/4분기 성장률은 -1.0%로 나타남

- 대내 부문과 대외 부문의 극심한 양극화와 유래없는 재고 감소는 98년 1/4 분기의 경제 성장 내용이 매우 불안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드러낸 것임

< 98년도 1/4분기 부문별 경제성장률 >

	1996	1997					1998
	1/4	1/4	2/4	3/4	4/4	연간	1/4
GDP성장률	7.6	5.7	6.6	6.1	3.9	5.5	-3.8
최종소비지출	7.4	4.4	5.1	5.1	-0.2	3.5	-9.5
민간소비	7.4	4.2	4.8	4.8	-1.0	3.1	-10.3
정부소비	7.4	5.1	6.9	7.2	4.0	5.7	-4.3
총고정자본형성	7.5	0.3	0.2	-3.7	-9.8	-3.5	-23.0
건설투자	10.5	0.8	1.8	3.8	3.7	2.7	-7.7
설비투자	4.3	-0.2	-1.8	-12.7	-28.2	-11.3	-40.7
재화와 용역의 수출	21.2	13.5	27.2	33.2	20.8	23.6	27.3
재화와 용역의 수입	16.6	8.1	7.3	4.7	-4.0	3.8	-25.4

< 재고의 변화와 성장률의 변화 >



- (경영 환경의 심각한 악화 반영) 불황 중에 나타난 기록적인 재고 감소와 총수입 및 설비투자의 급감은 기업 경영 환경 악화의 심각성을 대변하는 지표임
 - 98년 1/4분기의 재고 감소는 같은 기간 국내총생산 62조 6,736억 원의 15.6%에 이르고 있는데, 이같은 재고의 급격한 감소는 총수요의 위축에도 불구하고 금융 경색에 따른 기업 활동의 위축으로 원자재 확보와 생산 활동이 더욱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을 의미
 - 25.4%의 수입 감소 그리고 40.7%의 설비투자 감소도 모두 경영 환경 악화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음
 - 따라서 정부는 금융 부문의 구조조정을 앞당겨 장기화되고 있는 금융 경색을 완화하여 생산의 과잉 감소, 원자재 수입 위축, 투자 지연 등에 따른 비정상적인 불황 심화를 막아야 할 것임

□ 향후 전망

- 상반기 중 경제 성장률은 -2.0% 이하의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하반기에 다소 상승할 전망
 - 불황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는 내수 부진은 연중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총수출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불황 국면의 지속 예상
 - 다만 외환 위기 여파로 나타난 충격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금융 여건 안정화에 따라 어느 정도 흡수될 경우, 일시적으로 지연되었던 투자, 소비 등 내수 부문의 확대에 단기적인 성장률 상승은 가능할 것임
 - 그러나 전체적으로 98년은 구조조정 여파에 따른 내수 불황의 지속으로 전체적으로 80년의 -2.7%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(-)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

(이 태 열 tylee@hri.co.kr ☎724-4012, 민 주 홍 jhmin@hri.co.kr ☎724-4014)